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생명을 지킵시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사업주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정부는『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안심사회』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산업 재해·자살·교통사고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설정하여, 2022년까지 “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를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업재해는 본인의 불행 뿐 아니라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고 기업의 이미지와 국가경제 발전에도 큰 부담이 되는 등 인적 물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선제적 재해예방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고위험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제재 강화 등 산업재해 없는 「안전일류도시 大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안전은 결코 혼자서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업주, 근로자, 정부 모두가 적극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의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사업주 여러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안전대책 수립시행

둘째,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 안전교육 실시

셋째,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이동식비계, 사다리 등 5대 가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넷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상 조치 기준 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는 우리가 노력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건의 재해도 없는 안전한 일터, 행복한 대전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다시한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대전광역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